

美 철강관세 부담 확대... 가전업계, 생산지 재조정 가능성

철강 비중 높은 대형가전 직격탄
삼성·LG전자, 대응 시나리오 점검
일각선 제한적인 가격 인상 전망도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전업계로 확산되면서 수익성과 공급망을 동시에 압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철강 비중이 높은 대형 가전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생산 전략 재조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과세 기준이 완제품 전체로 확대되면서 세탁기·냉장고 등 철강 비중이 높은 대형 가전을 생산하는 국내 가전업체에도 관세 부과 영향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은 대형 가전제품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멕시코에 위치한 삼성전자 케레타로 공장.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는 지난해 6월 철강 함량 기준 관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미국 시장 내 한국산 가전 점유율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시각도 나온다. 다만 가전 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

고 있다. 삼성전자 VD·DA사업부의 경우 지난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연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손실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전자의 TV·IT제품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 역시 지난해 7509억원의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멕시코산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가전 업체들은 멕시코를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우회 생산 기지로 활용해왔다. 다만 재협상에서 관세 구조가 달라질 경우 그간 구축해온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북미 공급망 전략을 점검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멕시코 건조기 생산 일부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LG전자는 멕시코 냉장고 생산 일부를 테네시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등 당시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생산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올 초 보고서 통해 '트럼프식 관세 압박'이 한국 가전업체들의 생산 전략 변화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를 단순한 통관 비용 증가를 넘어 북미 생산 거점 배치와 조달 구조, 유통 채널의 가격 정책까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완제품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현지 생산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 물류비, 환율 등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세만으로 생산 전략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가격 인상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 확대에 따라 생산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단기간 내 구조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익성 압박이 이어질 경우 점진적인 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부산공장, 르노그룹 생산·수출 핵심 역할”

인터뷰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그룹 회장

국내 생산거점·협력 업체 점검
“전기차 중심 시장 경쟁력 강화”



르노 그룹 프랑수아 프로보 회장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차량 생산 및 수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지난 2011년부터 5년여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그룹 회장이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프로보 회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의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등을 방문해 주요 분야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르노코리아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에 이어 신형 하이브리드 SUV 필랑트가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아 현지

생산 거점과 협력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며 한국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보 르노 그룹 회장은 지난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술 요구 수준이 높은 한국은 D·E 세그먼트 중심의 성장 속에서 전동화 트렌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능형 차량 분야의 파일럿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룹의 중장기 전략인 ‘퓨처레디 플랜’에도 르노코리아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르노 그룹의 퓨처레디 플랜은 2030년까지 신모델 36종을 출시하고 전동화 및 글로벌 라인업 확대를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을 인도·모로코·터키·라틴아메리카와 함께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 퓨처레디 플랜에서 르노코리아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라인업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프로보 회장은 “한국에서는 단계적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격적으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 전동화와 브랜드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노그룹은 향후에도 전기차 중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르노 브랜드는 유럽 시장에서 2030년까지 전체 판매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나머지 50%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동안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기업과의 만남을 갖고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반도체’·LG ‘B2B’ 실적 반등 예고

양사, 내일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7일 나란히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삼성전자와, 가전·기업 간 거래(B2B) 사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 LG전자가 서로 다른 성장축을 기반으로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40조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된 수치다. 올해 초반 해도 30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전망치는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높아졌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20조1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이 약 37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 실

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약 3조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LG전자는 ‘체질 개선’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23조2822억원, 1조3755억원이다. 매출이 23조원을 넘길 경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가전 구독 모델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겨냥한 냉난방공조(HVAC) 등 B2B 사업 비중 확대가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반등을,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 성과를 각각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고성능차 시장 ‘게임체인저’ 부상

아이오닉 등 글로벌 어워즈 휩쓸어

현대자동차그룹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도하는 고성능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월드카 어워즈의 고성능차 부문에서 포르쉐, 아우디, 맥라렌, BMW와 같은 럭셔리·프리미엄 브랜드를 꺾고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3년 기아 EV6 GT로 처음 이 벼를 짰고, 2024년 아이오닉 5N에 이어 올해 아이오닉 6N까지 최근 4년 중 3차례 수상하며

고성능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6N은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에 선정됐다. 이는 내연기관의 기술력과 브랜드 전통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도하던 고성능차 시장에 현대차그룹이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이같은 지각변동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월드카 어워즈 심사위원 즈보니미르 유르치치는 아이오닉 6N에 대해 “현재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고성능 전기차 시장

에서 많은 모델이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운전의 재미, 정밀함, 진정한 주행 감각을 동시에 갖춘 차는 많지 않다”며 “아이오닉 6N은 가장 비싼 모델도 아니고 제원상 가장 끝에 있지도 않지만 까다로운 도로에서 정통 스포츠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차”라고 평가했다.

아이오닉 6N은 지난해 7월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첫 공개된 이후 올해 왓카 어워즈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탑기어 EV 어워즈 ‘운전자들 위한 최고의 차’에도 선정되며 글로벌 주요 매체의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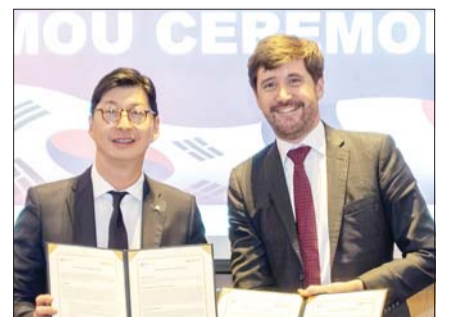
GS칼텍스-베올리아, 포괄적 업무협약

환경분야 등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

GS칼텍스는 지난 3일 글로벌 환경 솔루션 기업 베올리아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유틸리티 운영 혁신 및 지속가능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사는 기존의 단편적인 수처리 협력 관계를 넘어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베올리아는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양사는 산업계 전반의 환경 규제 강화



허세훈 GS칼텍스 부회장(왼쪽), 크리스토프 마케 베올리아 글로벌 사업총괄 선임부사장이 지난 3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와 에너지 효율 제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에너지·디지털 전 영역에서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